

여수 '낭만포차' 거북선대교 밑으로 옮긴다

설문조사서 51%가 이전 요구
시, 이전 사업비 5억원 편성
내년 7월까지 완료하기로
관광객 공동화 우려 목소리도



여수시의 대표 관광 상품인 여수낭만포차가 현 위치에서 이전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낭만포차가 이전 될 경우 자칫 관광객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수시 제공>

전국 최고 해양관광도시 여수시의 대표 관광 상품인 여수낭만포차가 현 위치에서 이전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수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50.9%)가 현 위치에 존치하자는 의견(39.8%)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민선 7기 주요공약 사업인 낭만포차 이전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지난 30일 오전 브리핑 룸에서 낭만포차 존치·이전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주)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만19세 이상 여수시민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낭만포차 이전(폐지)·존치 항목은 이전·폐지가 50.9%, 현 위치 존치가 39.8%로 조사됐다. 이전·폐지 응답자 중 이전은 42.2%, 폐지는 8.7%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9.2%로 가장 높은 이전(폐지) 찬성률을 보였고, 다음은 40대(62%), 30대(54.9%) 순이었다. 20대와 60세 이상은 현 위치에 존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전 장소로는 50.4%가 현 낭만포차 인근지역, 30.7%가 다른 지역을 꼽았다.

현 위치 인근지역으로 이전 의견을 밝힌 응답자에게 거북선대교(돌산2대교) 하부 공간 이전 찬반여부를 묻은 결과 90.4%가 찬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으로 국동 8.8%, 돌산 3.9%, 소호동 3.9%, 오동도 인근 3.5%, 박람회장 인근 2.2%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도로 혼잡과 주차문제 해결, 위생·안전점검, 기존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음식 맛 개선, 새로운 메뉴 개발, 해양공원의 원래 기능 회복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3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 포인트다.

여수시는 설문조사에서 낭만포차를 이

전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오에 따라 우선 낭만포차 이전 사업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본예산에 편성된 이전 사업비(5억원)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설계에 착수, 이전 대상지인 거북선 대교 하부 부지에 기반시설을 착공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7월 상하수도 전기시설 화장실 등 시설공사를 모두 마치고 이전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8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추경 예산안에 낭만포차 이전 사업비를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의회의 지적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

10월 30일 진남문예회관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낭만포차 문제점해소와 발전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번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수시는 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낭만포차 이전 예산확보에 주력, 시의회와 시민들의 추가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반면 이전 찬성 의견과 함께 여수낭만포차를 여수 밤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현 위치에 존치하자는 의견이 40%에 달한 만큼 향후 여수시가 시민들의 팽팽한 찬반 의견을 어떻게 아우를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여수시가 세계박람회 이후 전국적인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떠오르면서 3년 연속 1000만 관광객 달성과 지난해 1500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인 낭만포차가 이전 될 경우 자칫 관광객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시의 낭만포차 이전 결정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기존 상가 및 상권 활성화 대책과 그동안 낭만포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통난과 소음 공해 등을 여수시가 어떻게 해소해 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여수시 관계자는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었던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처음 시작된 낭만포차가 지금은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컨텐츠로 성장하면서 도시 발전의 큰 역할을 해냈다"며 "앞으로 시의회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이전으로 교통난·소음 공해 해소와 원도심 쇠퇴 지역의 발전도 동시에 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지난달 30일 권오봉 여수시장과 직원 25명이 시책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브라운 백 미팅을 가졌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장과 직원들 격의없는 대화 나눠요”

‘브라운 백 미팅’ 새로운 소통문화 호응

시장이 직원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는 이른바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이 새로운 소통문화로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달 30일 여수시장 회의실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권오봉 시장과 직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책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진행된 브라운 백 미팅은 점심 시간에 샌드위치나 김밥 등을 먹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회의다. 조직 내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권 시장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직급·직렬·성별 등 구분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참석자들은 권 시장에게 조직 문화 및 근무여건 개선, 인사 고충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생활을 위해 제도 개선과 인사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직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

는 직장 분위기 조성, 외곽청사 직원에 대해 배려, 소수직렬 인사·업무 고충, 협업 행정을 위한 청사 공간 재배치,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함께 논의됐다. 미팅에 참석한 한 직원은 “평소 만나 법이 어려운 시장님을 이런 편한 자리에서 직접 만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브라운 백 미팅이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공유하고 학습하며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다양한 직급·직렬 직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평소 생각하고 있던 진솔한 의견을 직접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미팅을 지속적으로 열어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국가사업 추진을”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여수 '화태-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사업'의 국가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일 여수시는 전남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사업 구간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화태-월호-개도-제도-백야 등 4개의 연도교를 건설해 여수시 남면 화태도와 화정면 백야도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2003년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에 반영됐지만, 지난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됐다.

화태-백야 연도교는 여수지역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어 건립 목

소리가 높다.

우선 여수에서는 연도교가 완공되면 외곽순환도로 기능을 해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돌산지역은 섬지형 특성상 한번 지나간 길을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시는 연도교 건설로 돌산읍과 화정면 간 국도 77호선이 이어질 경우 교통량이 분산돼 돌산지역은 물론 여수 동부지역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화태-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은 고흥에서 여수, 경남 남해, 통영, 거제를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과 해안선, 육지와



2015년 개통한 돌산과 남면 화태도를 잇는 화태대교.

섬, 섬과 섬을 연결한 다리를 감상할 수 있는 해양관광도로가 조성되는 것이다.

2003년 국도건설사업에 반영된 여수-고흥 간 11개 연륙·연도교 중 8539억 원을 들여 이미 개통했거나 공사가 추진 중인 7개 연륙·연도교의 가치와 투자효과가 커지게 된다. 특히 내년 말 여수 화양에서 고흥까지 4개 연도교가 추가 개통하면 화태-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현재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11곳 중 돌산-화태(4km), 백야-화양(2.6km), 적급-영남(2.98km) 구간이 개통된 상태다.

안포-정수(7.3km), 화양-조발(2.05km), 조발-남도(3.90km), 남도-적급(3.64km) 등 화양에서 고흥구간 4개 연도교는 내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은 섬 주민 생활편의 향상과 세계 섬 박람회 개최 기반 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남산공원 개발 어떻게...내일 시민 공청회

여수시는 남산공원 2단계 조성을 앞두고 '도심 속 자연형 근린공원' 및 '해양관광형 랜드마크 공원'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시민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5일 오후 3시 30분 여수시문화원에서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자유질의를 진행한 다.

정근호 전남대 교수가 토론을 주재하고 주민대표 등 다양한 분야 8명의 패널이 나와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산공원은 돌산공원과 경도, 가막만이 한눈에 보이는 원도심 최고의 '뷰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다.

남산공원이 개발되면서 애초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여수시의회를

주축으로 전망대 등 랜드마크를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월 현재 남산공원은 공원진입로 427m와 주차장 100면 등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2단계 정장부 공원조성만을 남겨두고 있다.

시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추가 여론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최적의 남산공원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개발과 보존의 동행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